

학회소식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공청회 개최 (2010.4.14)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0년 4월 14일(수) 오후 7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태아측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허용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패널 토의 형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조태호 회장님, 박용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학회 집행부 및 관련 위원회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본 학회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셨으며, 일반 회원들과 의학도들 및 전문가자들까지 다양하게 많이 참석하여 인공임신중절의 문제가 산부인과분야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세간의 관심의 정도를 실감하게 해주었다.

패널 토의를 시작하며 모두에, 좌장을 맡은 손영수 TFT위원장은 이번에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집행부 차원에서 모자보건법 TFT를 구성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정리하여 보고하고, 패널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패널 토의자들에게 설명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공청회는 현행 모자보건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의를 하는 자리로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의료윤리적인 찬반논의를 자제해 주시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태아측 사유에 대한 관련 전문가적 입장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에 TFT를 구성하여 모자보건법 개정가안을 만드는 작업의 목적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차원의 모자보건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사유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나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셋째, 작금의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현실에서의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작업에 대비하여 의학적인 차원의 보완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태아측 이상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적 개정가안을 마련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모자보건법 TFT의 제한된 목적에 따라, 개정가안도 “태아측 이상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을 중심으로 하여 초벌 작성되었으며, 공청회의 진행도 찬반토론을 주로 하는 포럼 Discussion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본 공청회를 통하여 오로지 원칙적인 패널 토의의 특성을 살려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담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향후 의협 혹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수준의 공청회에 <의학적으로 타당한 태아 측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와 인공임신중절의 합리적인

결정절차>를 제시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패널 토의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전문가적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개진된 의견들의 총론적 Consensus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행 모자보건법의 명백한 불비인 태아측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규정의 신설은 필요하다. 둘째, 태아측 사유를 법문에서 규정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유전학적 이상, 선천성 이상 및 전염성 질환으로 굳이 어렵게 분류하여 규정할 실질적 이유가 없으며, 원인에 상관없이 태아측 선천성 이상의 존재 유무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기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의학적으로도 타당하다. 셋째, 태아측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의 합리적인 결정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각론적으로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진단의 객관성과 인공임신중절의 타당성을 검정할 수 있는 2차 의견(second opinion)을 얻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의료윤리의 차원에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의사집단의 자율성, 전문성, 윤리성 및 사회에서의 신뢰성 등이 모두 확보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태아측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이라는 의학적인 면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번의 공청회를 통한 산부인과학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한 제안은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의 대한산부인과학회 주최의 제 2차 공청회, 관련 의료분야와의 연합공청회, 의협 혹은 복지부 및 국회 등의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 공청회 등으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TFT와 법제위원회에서는 금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검토 작업을 거쳐 2차 가안을 만들고 그러한 논의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주최 인공임신중절 대책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일자 및 장소: 2010.4.5(월) / 보건복지부
참석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박문일 교수/한양의대, 박형무 교수/중앙의대, 김상운 교수/연세의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안건: 모자보건법 개정관련 토론회 개최의 건

제 3차 개원특임위원회 개최

일자 및 장소: 2010.4.6(화) / 대한산부인과학회
안건: 요실금 개정안 검토

제 3차 정책위원회 개최

일자 및 장소: 2010.4.8(목) / 대한산부인과학회
안건: 현재 산부인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정책 추진

대한의사협회 주최 의료사안 감정업무 제도개선을 위한 학회 간담회 참석

일자 및 장소: 2010.4.9(금) / 대한의사협회 7층 사석홀
참석자: 김미란 교수(가톨릭의대)
안건: 1) 의협내 ‘(가칭)의료사안감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
2) 의료사고 외 일반, 산재 등 감정분야로 확대에 관한 건
3) 학회 감정회신 기간 단축 협조 요청의 건
4) 학회 감정료에 관한 논의의 건
5) 기타 의료사안 제도개선 대책 논의의 건

정영희 의원실 주최 정책토론회 참석

일자 및 장소: 2010.4.12(월)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발제자: 박형무 교수(중앙의대)
토론자: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보건교사회 관계자, 애란원(미혼모 생활시설) 관계자, 프리라이프 의사회 관계자
안건: 청소년 임신과 낙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제 5차 보험위원회 개최

일자 및 장소: 2010.4.14(수) / 대한산부인과학회
안건: 실폐괄수가 TFI 구성 및 실폐괄수가대비 산부인과 전략적 대응방안

제 5차 법제위원회 개최

일자 및 장소: 2010.4.16(금) / 대한산부인과학회
안건: 1) 모자보건법개정안 마련 공청회 이후 추진 계획에 관한 건
2) 2010년 추계 산부인과학술대회 의료법리 Session 진행에 관한 건 외

제 6차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 및 장소: 2010.4.19(월) / 대한산부인과학회
안건: 의료사안 13건 검토 완료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약체 운영 실무대표회의 참석

일자 및 장소: 2010.4.20(화) / 보건복지가족부 9층 중회의실
참석자: 보건복지부, 대한산부인과학회(안현영 교수/가톨릭의대), 학계, 종교계, 언론계, 의료계, 여성계, 교육계, 법조계 등 관련단체
안건: 1) 사회협약체 추진 경과보고
2) 협약서(안) 보고
3) 사회협약식(안) 보고 등 논의-5월 마지막 주로 연기

대한의사협회 주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관련 간담회 참석

일자 및 장소: 2010.4.20(화) / 대한의사협회 7층 사석홀
참석자: 대한산부인과학회(선우재근 교수/순천향의대, 이동욱 원장/한나여성병원)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안건 :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에 대한 검토 등

제 4차 정책위원회 개최

일자 및 장소: 2010.4.27(화) / 대한산부인과학회
안건: 산부인과 전문의대상 설문지 진행계획 토의

AOFOG Council Meeting 참석

일자 및 장소: 2010.4.14(수) / Hotel Radisson, Kathmandu, Nepal
본 학회 참석자: 장윤석 교수(Immediate Past President of AOFOG)
남주현 교수(Chair of Endoscopy Committee)
보고 및 결의사항:
1) YS Chang Endowment Award의 가이드라인 확정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Endoscopy Committee의 Training Program -AOFOG 와 APAGE가 endorse하는 Endoscopic Training Program을 구성하였음
-1년에 2인을 선정하여 training center로 한국의 서울아산병원과 대만의 Chang Gung Memorial Hospital에서 각 1인씩 연수시키기로 정함
-선정자격은 저개발국가의 40세 이하의 젊은 산부인과 의사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정함
3) AOCOG 2011, Taipei, Taiwan의 준비사항 보고가 있었음
4) APSIDOG (Asia Pacific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창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5) Treasurer의 보고사항으로 AOCOG 2009, Auckland, New Zealand 에서의 Congress Income이 \$140,000 USD가 송금되어 왔으며 앞으로 Congress Income의 10%를 Educational Fund에 편입하기로 결정함

제 62차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2010.4.22~25, Tokyo International Forum, Japan)

지난 4월 22일(목)~25일(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제 62차 일본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연자 및 좌장을 포함해 총 6,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일본산부인과학회는 국제적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1993년부터 International Session(IS)을 학술대회 본 프로그램의 일부로 구성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4월 23일(금)에 International Session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는 포스터 세션에서 준비한 다양한 주제를 영어로 설명하였다. IS Award를 수여받은 우수 발표자에게는 구연발표의 기회도 주어졌다. 또한 올해부터는 우수 포스터 제출자에게 IS Good Poster Award가 수여되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총 여덟 명이 IS Award와 IS Good Poster Award를 수상하였다. 같은 날인 23일(금)에 제 11차 일·독 합동 산부인과 심포지움이 satellite program으로 구성되었고 24일(토)~25일(일)에는 일본어로 진행되는 Educational Lecture, Presidential Lecture, JSOG Symposium이 진행되었다.

본 학회에서 수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IS Award

이은주(중앙의대 조교수)

A comparative study of laparoscopic radical hysterectomy with radical abdominal hysterectomy for early stage cervical cancer: A long-term follow up

최철훈(성균관의대 임상조교수)

Peritoneal Tuberculosis: A Retrospective Review of 20 Cases and Comparison with Primary Peritoneal Carcinoma

최종열(부산의대 임상조교수)

The hyperexpressions of undifferentiated markers of stem cells in the endometrium of patient with endometriosis

IS Good Poster Award

이마리아(연세의대 강사)

Single port transumbilical laparoscopic surgery for adnexal lesions in gynecology

조혜연(전남의대 전임의)

Changes of Lipid Peroxidation and Protein Carbonyls formation after Antibiotics Administration in the Maternal Venous Plasma of Gestational and Overt DM

배효숙(고려의대 전공의 3년차)

Strategy for Management of Massive Postpartum Pulmonary Embolism: Comparison of Outcomes in Two Cases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안기훈(고려의대 임상조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follicle-stimulating hormone and estradiol levels and urodynamic results in patients with pelvic floor dysfunction

김희승(서울의대 진료교수)

Limited benefit of neoadjuvant chemotherapy before surgery in FIGO stage IB-IIA cervical cancer: A meta-analysis

제 62차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참관기

이은주 교수(중앙의대)

이번에 62회째 열린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참석이다. 3년전 전임의 시절 나의 해외학회 첫 발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 때는 포스터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IS award Candidate으로 선정되어 Oral Presentation과 함께 뜻하지 않게 수상을 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는 1993년 이래 International Session이 구성되어 있어 일본 산부인과 의사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영어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지식도 교환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포스터도 관심 있는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직접 질문을 받기 때문에 발표자로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집중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넘어가 버리는 Oral Presentation 보다는 훨씬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학회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하다. 많은 선생님들이 좌장으로 초청되어 International Session를 이끌어 가고 계셨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마다 마음이 뿌듯하였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International Seminar for Junior Fellow 대신 International Session이 오전에는 Oral presentation, 오후에는 Poster presentation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여 편의 Clinical or Research topic들이 발표된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내가 일본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또 하나의 즐거움은 우리나라 산부인과 영역에서 활발히 활약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서 뵈 수 있고,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인사도 드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사나운 망망대해에 튼튼한 배를 탄 것 같은 느낌이다. 또한 같은 연배의 선생님들과도 잠시나마 얼굴을 맞댈 수 있으며, 앞으로 떠오를 전임의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어 즐거웠던 것 같다. 발표가 끝나 마음도 흥분하고 복잡한 서둘도 떠나 있어서 묶어 두었던 마음의 여유도 조금 꺼내서 즐길 수 있었으니, 선생님들을 뵈는 마음도 한 층 더 들떠서 좋았던 것 같다.



행사소식

대한산부인과학회 자궁경부암 예방 주간 제정 기자간담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자궁경부암 예방 주간 제정 및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 발족을 위하여 다음의 일정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발표주제로는 최근 국내 자궁경부암 발생 동향 및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우리 나라 인식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침윤성 암 통계는 감소했지만 전암 환자와 선암이 증가하고 있고 젊은 여성의 자궁암 발병 위험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검진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학회는 자궁경부암 예방주간 제정 및 캠페인 발족의 취지를 소개하고 행사 프로그램 및 향후 계획을 널리 알려 여성들의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 하였다.

- 주최: 대한산부인과학회
- 일시: 2010년 5월 13일 (목) 오전 11시
- 장소: 서울롯데호텔 [오닉스룸 2F] (소공동 소재)
- 참석자: 본 학회 상임이사진 및 언론 관계자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와 성경험과 관계없이 예방백신 접종을 병행하는 것으로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궁경부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5월에 자궁경부암 예방주간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첼리스트 조영창과 함께하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콘서트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하게 되었다.

- 주최: 대한산부인과학회
- 후원: 보건복지부
- 협찬:  GSK
-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26일(수) 오후 7:30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 2010년 5월 27일(목) 오후 7:30 김해 문화의전당 마루홀
 - 2010년 5월 31일(월) 오후 7:30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신청방법: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콘서트 지역, 이름, 소속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학회에 이메일(concert@ksog.org)로 5월 20일(목)까지 보내주시면 콘서트 초대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1인 2매)
-자세한 사항은 본 학회 홈페이지 참조-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모임

- 일시: 2010년 5월 27일(목) 오후 7시
- 장소: 경주 요석궁(한정식당)

제 43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 일시: 2010년 5월 28일(금)~29일(토)
- 장소: 경주 현대호텔

보험소식

1. 지난 4.14(수) 대한산부인과학회 내에 신포괄수가 Task Force Team이 출범하였다. 본 학회 보험위원장인 이근영 교수(한림의대)는 대한병원협회 신포괄수가 자문단 대표를 맡게 되었으며, 보험위원회 산하로 구성된 본 TFT의 팀장으로 류기성 교수(가톨릭의대)가 선임되었다. TFT위원으로 김철수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영한 교수(연세의대), 윤석완 원장(성완산부인과), 정창진 원장(의정부신여성병원)이 선임되었다. 향후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대표하여 정책적인 대응방안, 반대논리 작성 등 여러 가지 정책과 실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요실금 수술기준에 대한 의견조치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수가기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뢰되었다. 보험위원회 부인배뇨분위, 자학회인 배뇨부인학회, 개원가가 함께 모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개선안을 전달하였다.
3. [알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등에 관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 2010. 1. 31. 시행)

- ❖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 ❖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을 정하여 총액을 표기 가능
- ❖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 급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함 (일부 발체, 상세내역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소식란 참조)